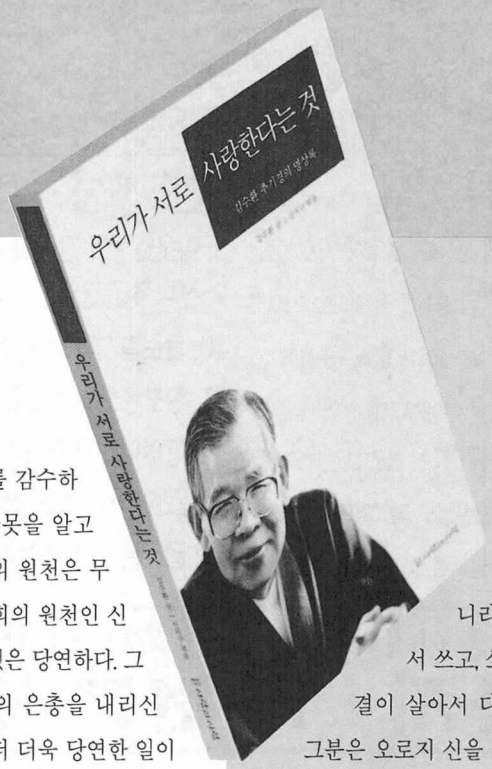
'자기 비움'의 철학 담긴 깊고 뜨거운 '신학적 고백록'

김수환의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읽고

김중배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

미(未)교도임을 자처하는 나같은 문외한이 '신학적 고백'의 깊고 뜨거운 뜻을 되새겨보는 이유는 자명하다. 추기경의 고백록과 명상록의 책장마다 고백의 진수, 고백의 진경을 실감케 하는 탓이다. 그분은 스스로를 죽었다고 선언한다. 거듭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사람과사람/A5신/302쪽/7800원

"60세의 인간 '김수환'은 죽었다. 세상은 그를 높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그가 얼마나 약하고 죄많고 이기적이고 허영스럽고, 겸손한 체하면서 실은 교만한지 잘 아신다. 그는 참으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인간이다. 그는 죽었다! 거듭나기 위해서! 그를 위해 수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나기 위해 '묵은 인간 김수환'은 죽어야 한다."

— 1982년 1월 22일 수원 '말씀의 집'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신앙고백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와 그분의 명상록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읽고 난 뒤부터,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충격의 고백록이다. 역시 '신학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인가. 고백은 물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인정한 바를 그대로 드러내는 데서 비롯된다.

고백의 진수 만끽하는 즐거운 책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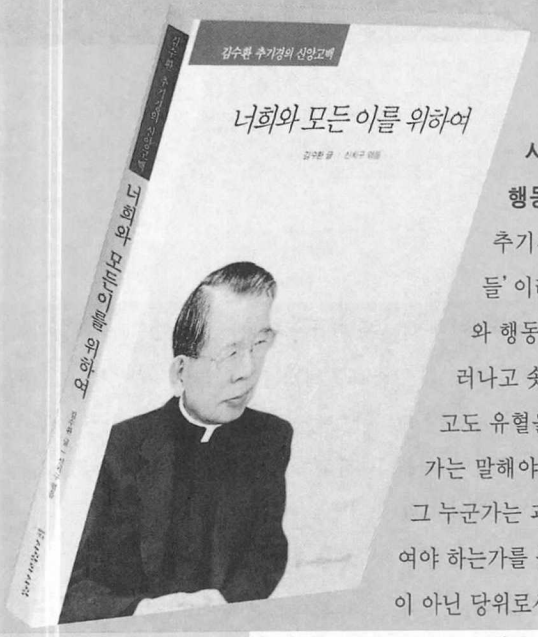
그러나 신학과 일치한다는 고백은, 그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성 어거스틴의 연구자들은 참회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리고 마침내 찬미의 고백이 어우러져야만 비로소 '신학적 고백'의 알맹이가 두루 채워진다고 말한다. 잘못을 승인하고 모든 비난과 죄를 감수하는 것이 참회다. 그러나 잘못을 알고 죄를 감수하는 앎과 용기의 원천은 무엇인가. 신이다. 따라서 참회의 원천인 신의 은총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마침내 참회와 감사의 은총을 내리신 신을 찬미하게 되는 것은 더 더욱 당연한 일이다.

이(異)교도라기보다는 미(未)교도임을 자처하는 나같은 문외한이, 주제넘음을 무릅쓰고 '신학적 고백'의 깊고 뜨거운 뜻을 되새겨보는 이유는 자명하다. 추기경의 고백록과 명상록의 책장마다 고백의 진수, 고백의 진경을 실감케 하는 탓이다. 그분은 스스로를 가차없이 난타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죽었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분은 거저 죽는 게 아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나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분은 다른 글자리에서도 "나는 석양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인생의 석양이 마음의 고향처럼 다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은 그렇게 고향길 가까이 있다"는 그분의 고향은 과연 어디일 것인가. 구태여 대답할 나위도 없다. "김수환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영(零)이 된다"는 그분의 토로는 어느 한 대목 문장이 아니라, 모든 고백의 문맥이다.

또한 그분의 고백은 기교가 아니라 기도다. 기도하면서 쓰고, 쓰면서 기도하는 숨결이 살아서 다가든다. 그렇다면 그분은 오로지 신을 향해서만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다. 신을 마주하며 사람들을 향해서 고백한다. 갈수록 주제넘음이 더해져 민망하지만, 분명히 나의 눈에는 그렇게 비쳐진다. 애당초 은둔과 도피는 그분의 삶과 무관하다. 정작 복음이 현실로 피어나야 할 땅은 '신의 나라'가 아닌 '지상의 나라'다. 때문에 비인간화의 체제나 제도에 대해, 언제나 비타협적이며 도전적일 수밖에 없다. 그 도정은 가시밭길이며 십자가가 기다리는 길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넘어서야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인간해방이 열리게 된다.

비단 그분이 '다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제만이 아니다. 무릇 성자가 획득하는 영원성이란 결코 그가 살았던 시대성과 배치될 수 없다. 오히려 그가 시대를 철저하고도 치열하게 살아냄으로써 영원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영원의 성자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시대의 아들'이 아니던가. 그것은 교회와 사제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사람과사람A5신/302쪽/7800원

가 '지상의 나라'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대와 더불어 고뇌하고 행동했던 거목

추기경 스스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들의 고뇌와 행동 역시 다른 이유와 동기에서 우러나고 솟아났던 것은 아니다. 불의를 보고도 유혈을 보고도 침묵하는 시대에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누군가는 행동해야 한다.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 사실 누구여야 하는가를 묻는 것은 그릇된 물음이다. 현실이 아닌 당위로서는 모두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누구였던가'라고 묻는 편이 적절할 법하다.

나는 오직 한분뿐이었다고 과장하지는 않을 터이다. 그러나 적어도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말과 행동의 정상에 자리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체제의 비인간화와 독재의 억압에 맞섰던 그분의 말과 행동을 두루 열거할 만한 겨를은 없다. 가령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던 학생들을 이른바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고 구금하려 했을 때, 그분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던가. "그렇게 한다면 맨 먼저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부님들이, 그 뒤에는 수녀님들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분의 결연함으로 말미암아 농성학생들은 무사히 자진해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분을 두고 교회안팎에선 "권력욕과 허영으로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란 모함이 퍼부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에게 이런 상황에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물으며 더 이상 정치문제로 기도회나 강론을 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했던 그분에겐 참으로 가당치 않은 모함이었다. 이제서야 알게 됐지만, 그 순간들의 고뇌속에서 그분은 몇 차례나 사표를 적었다가 찢어버리곤 했다고 한다. 진실과 정의를 배반하는 시대는 필연적으로 진실과 정의의 인간마저 배반하고 만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선, 추기경이 더욱 강력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의 유혈사태를 둘러싸고 비판의 소리가 사뭇 높아졌던 것이다.

이제야 고백한다. 나 또한 그 중의 하나였음을. 1985년의 가을, 나는 김수환 추기경과 인터뷰하면서, 짐짓 우회적으로 원로들의 제 구실을 물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분은 오히려 물음의 핵심을 뚫어보고 "광주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좀 생각해보고 노력해봤는데 실패했다"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역시 고백은 소중하다. 그것은 참회와 감사와 찬미 이전에 진실을 복원한다. 진실을 알지 못했던 무리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준다. 그분의 고백록과 명상록은 그날의 경과를 소상히 밝혀준다. 대응의 합의에 실패한 원로들의 이름도 확인되고, 마침내 독자 항의성명의 좌절도 뼈저리게 기록된다.

참으로 부끄럽다. 이미 책으로도 찍혀나온 지난날의 인터뷰를 어찌해야 하는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활자의 기록이란 그렇게도 두려운 작업임을 새삼 통감하게 된다.

물신주의에 휩싸인 인간세계의 파수꾼

추기경은 신학이 하느님에 관한 학문이면서 바로 인간에 관한 학문임을 강조한다. 또한 신학이란 단지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체험 위에 쌓여야 한다고도 역설한다. 그 모두가 그분의 말과 행동을 지탱하는 신학관일 터이다. 더구나 그분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풀어 말한다.

"교회는 한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파수꾼도 돼야 하고 그것의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경제도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나도 대통령이 지적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교회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문제에서 그것이 인간의 기본권리를 유린한다든지 정의에 어긋난다든지 할 때는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그렇다. 국가는 교회의 영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중세의 정치이념이 힘을 잃은 지는 오래다. 그러나 '신의 나라'에 대한 '지상의 나라'의 종속이 끊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갖는 영적 지도력이 완전히 부정돼버린 것은 아니다. 더구나 오늘의 현실은 추기경이 말하는 세계화와는 다른 '세계화'로 말미암아 사랑과 나눔의 미학은 메말라가고 물신주의와 무한경쟁의 회오리가 기세를 떨쳐간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저마다의 문화와 민족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민족, 인종, 피부색깔, 빈부의 격차 등 모든 차별을 넘어서 하나로 되는, 추기경의 세계화는 도리어 멀어져가는 듯이만 보인다.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힘의 모자람을 고백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제의 영성을 피리에 비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재속회에서는 그들의 영성을 피리에 비유한다고 한다. 피리는 속이 비어 있어야만 피리 부는 이가 소리를 원하는 대로 낼 수 있다는 뜻에서다. '자기 비움'의 철학이며 신학이다.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 그분의 간절한 고백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좀처럼 피리에 따라 춤 추지 않는다. 춤 추지 않는 것으로만 보인다. '신의 나라'는 무엇이며 '지상의 나라'는 또 무엇인가.●